

설소대 단축증 아동의 설소대 절개술 전 후 치조음 발음 양상의 변화

고중화*, 안서지, 신지철, 최호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흔히 설소대 단축증이 조음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왔으나 설소대 절개술 후에 설소대 단축증 환아들의 조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목적 : 따라서 본원에서는 설소대 절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아동들에 대한 조음장애의 정도를 알아보고, 설소대 절개술 전 후의 자음정확도를 분석하여 설소대 절개술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98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설소대 절개술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 아동들 중 자폐 혹은 정신 지체 등의 다른 기질적 문제가 없었던 아동들에게 언어 인지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생활 연령과 동일한 수용 언어 능력을 보이거나 조음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37명의 아동들에게 설소대 단축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음군인 치조음에 대한 그림 자음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설소대 절개술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술 후 1개월에 그림 자음 정확도를 재평가하여 술 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 환아군과 정상군의 치조음 정확도 비교에서는 환아군의 치조음 정확도가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치조음 중에서도 유음 및 마찰음에서의 지체현상이 두드러졌다. 37명의 환아군 중 술 후 자음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었던 환아는 17명이었는데 이들의 수술 전후의 유음과 마찰음산출은 유의한 호전이 있었으나 다른음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설소대 절개술 이후 한 달 안에는 술 전과 비교해 유음과 마찰음 이외의 치조음 산출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상군과 환아군의 비교에서는 조음발달 지체 현상이 뚜렷해 향후 설소대 단축증 아동들에게는 수술 외에도 조음 발달을 위한 언어 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언어평가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